Vol.02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뉴스레터

HANBAT·NATIONAL·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Converging Science

N·E·W·S·L·E·T·T·E·R

국립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뉴스레터를 펴내며 ····· 03

즐거운 대학생활 ····· 04

201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드림캠프

제 2회 한마음체육대회

MBTI 성격유형검사

팀 타이어뱅크 업무협약

새만금 현장답사

슬기로운 조직생활

DISC 행동유형 진단을 통한 자기인식 특강

우리학과를 소개합니다 ····· 07

스포츠건강과학과 |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이혁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 08

Successful Campus Life | 창업경영학과 1학년 송지혜,정원섭,김덕식

학생마당 ····· 09

나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전기시스템공학과 1학년 최병호

나의 스트레스 해소제 스포츠건강과학 | 스포츠건강과학과 1년 최윤주

초심의 마음으로 | 회계세무부동산학과 2학년 장혜정

소중한 우리 동기, 우리학과 | 창업경영학과 3학년 김성환

학생상담실 이야기 ····· 13

상담을 처음 만나던 그날 |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2학년 한민우

내 마음속의 요술램프 | 스포츠건강과학과 2학년 강경숙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다 거기서 거기 | 전기시스템공학과 1학년 김남철

70살에 다시 쓰는 인생 스토리 | 회계세무부동산학과 2학년 김해영

미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15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뉴스레터

2019. 07.

Vol.02

발 행 일
2019년 7월

발 행 처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주 소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

전 화
042.828.8888

홈페이지
http://mirae.hanbat.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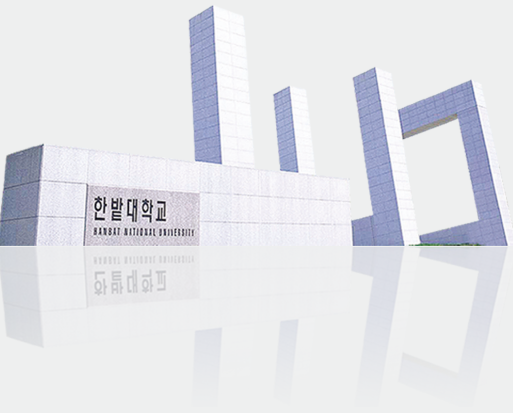
뉴스레터를 펴내며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김 윤 현 학장

어느덧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네요. 올 입학하신 학생들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반면 3학년 학생들은 벌써 졸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번 학기를 유익하게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대학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제공해 주었는지, 혹시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 저 나름대로 걱정도 됩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 (이하 '미래대') 교직원들은 평생교육의 취지 아래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여러분들의 만학의 꿈, 경력 향상 그리고 대학생활의 향수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재학생뿐만 아니라 향후 입학생들도 가장 다니고 싶은 대학, '미래대' 동문이 된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평생교육 일류 대학의 성과를 목표로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소통의 창구로서 본 뉴스레터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담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작년 이후 2번째로 발행되네요. 이 뉴스레터에는 '미래대' 의 모든 분들의 희로애락, 칭찬과 비판, 미래대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기를 바라며 최소한 매년 1, 2회 발행을 넘어 매달 발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미래대' 는 2017년 첫 입학생을 받은 이후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에 선정되어 미래대의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하여 왔으며 이번 2019년 사업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미래대의 레벨업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4년 동안 수행하게 되며 그 중 상담실, 온라인 컨텐츠 개발 등 기존 구축된 인프라는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성인학습자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헬프룸 구축, 학생 휴게실, 미래대 학생 자치실, 교육법 개선을 위한 교육품질센터 등 새롭게 성인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대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일류대학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하며 또한 교육, 행사 등 미래대에서 주관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아니 참여 이상의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여 기획하고 운영되는 그런 대학이 함께 꿈꿔봅시다. 올 여름도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건강한 여름 방학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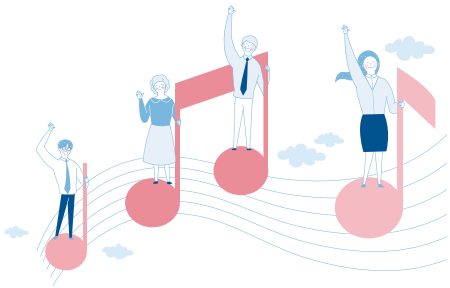


즐거운 대학생활

Happy college life

2019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23일 8개학과 신입생들과 이루어졌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드림캠프

5월~6월동안 각 학과별로 드림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2회 한마음체육대회

미래산업융합대학 모든 학과가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로 화합되는
제 2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1일(토)에
개최되었습니다.
핑크팀 그린팀 레드팀 모두 파이팅!

MBTI 성격유형검사

나는 어떤 성격유형의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알쏭달쏭 궁금한 나와 당신의 성격유형. 5월 11일(토) 학생상담실 주최로
MBTI 성격유형검사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팀 타이어뱅크 업무협약

한밭대학교와 팀 타이어뱅크가 한밭대학교 홍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5월 22일(수) 맺었습니다. 평생학습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새만금 현장답사

회계세무부동산 학과에서
지난 6월 8일 새만금 개발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무지식과 이론을 접목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조직생활

직장내 관계 스트레스 정말 힘들죠? 지난 2018년 10월 13일(토)
학생상담실에서 주최한 “슬기로운 조직생활”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 · 학습 병행하는 미래대인 화이팅!!

DISC 행동유형 진단을 통한 자기인식 특강

2019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5월~6월에 걸쳐 “찾아가는 성격유형
검사 DISC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상담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상담실에서
는 매년 찾아가는 심리검사 특강을
실시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매우 집중하는 학생
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였습니다.

‘100세 시대’ 를 선도하는 평생체육 실현

스포츠건강과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교수 이혁

우리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스포츠건강과학과는
사회가 건강과 웰빙 중심으로 전환 되어감에 따라 여가활용, 예방의학 차원, 국민복지,
스포츠의 대중화를 지향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지식과 실습능력을 학습하여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평생체육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 시스템 역시 현장실습과 진로를 연계하고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을 비롯해
종목별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졸업 후 취업이나 재취업 창업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와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건강’ 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포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체육활동은 앞으로 더욱더 필요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경쟁력 있는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교육과정이
바로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스포츠건강과학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의 기초 및 전문지식 학습과정”을 비롯해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필수교육과정”, “다양한 생활체육 지도자자격증 취득과정” 등
다양한 영역별 과정을 통해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건강과학과는 시대적 상황과 수요자의 요구,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과 학생들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uccessful Campus Life

창업경영학과 1학년 송지혜, 정원섭, 김덕식

Q: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동안 동아리 창단으로 바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송지혜(이하 송): 네 저희가 이번에 SCL이라는 새로운 동아리를 창단했는데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들이 있어서 좀 바쁘긴 했는데 지금은 잘 마무리돼서 한시름 놓았어요.

Q: 동아리 멤버가 어떻게 되나요?

송: 네 제가 회장이구요. 여기 계신 막내 덕식씨가 부회장 그리고 제일 큰 형님이신 정원섭님이 총무님이세요. 저희들은 남녀 구분 없이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 최종으로 17명으로 확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Q: SCL이 어떤 의미인가요?

정원섭 (이하 정): Successful(성공적인) Campus(캠퍼스) Life(생활)의 약자예요. 우리학과가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각자 시간 낼 수 있는 여유도 다르다 보니까 학업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보가 부족할 때도 있고 특히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신개념 단어들은 낯설 때가 많은데 같은 입장에 있는 학우들끼리 서로서로 도와가며 학업준비도 하고 친목도 쌓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덕식:(이하 김): 저희 학과 특성상 이미 창업을 하셔서 사업주이신 분들도 많고 연령대가 40~50대이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저희 동아리나 학과에서 제일 막내인데(91년생) 저 같은 경우는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인생의 선배님들과 함께 삶에 대한 조언도 얻고 또 수업시간 이외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학우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게 좋았던 것 같아요.

Q: 다들 신입생들인데 처음 동아리를 만드는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송: 그런 면이 약간은 있죠.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학우들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장직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늘어나고 의견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늦깎이 대학생이라도 학교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싶고 학업을 제대로 해내고 싶은 열정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함께 모여서 나누면 더 뜻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입장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송회장이 수고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애써주고 또 나를 큰 형님으로 부르면서 인생 선배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 나름대로 내 인생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과에 왔을 때 우리 덕식이 막내(91년생)부터 54년생인 나까지 나이 차이가 참 다양했어요. 자식보다도 더 어린 동기들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친구들과 의사소통해야할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사실 수업시간에만 만나고 끝나면 늦은 시간이라 급히 집에 가다보면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아리가 그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켜준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원 간에 친목도모가 잘 되니까 의사소통도 쉽고 소속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아 도와줬습니다.

김: 저는 오히려 형님과 누님들이 잘 챙겨주고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동기분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시다 지금은 관련 사업을 하신 형님이 계신데 마케팅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제 또래 친구들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 (웃음)

Q: 아직은 신생 동아리인데 앞으로 어떻게 커나가길 바라나요?

송: 우선 오래오래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름대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동아리가 되길 바래요.

정: 저는 저희 학과가 창업경영학과잖습니까? 우리 동아리가 꼭 학업이나 친목활동만으로 국한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함께 창업을 해볼 수 있는 동아리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공동창업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나 혼자 속내이긴 한데 다양한 업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등산을 한다던가 밴드를 결성한다던가, 동아리만의 특성 개성을 살려서 동아리의 성격을 좀 더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기시스템공학과 1학년
최병호

대전에서 공업계 고등학교 전기과를 졸업 한 나는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했다. 당시 난 대전산업대학(현 한밭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불합격의 결과가 돌아왔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대입 실패 후 한동안 방황을 했다

그 이후 난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고졸 공채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취업 후 난 전공분야인 전기관련 부서 업무를 시작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입학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기 마련이었다. 마음은 항상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고졸이라는 학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직장생활 동안 국가기술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퇴근 후 하루에 3시간씩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전공분야를 포함하여 소방, 안전, 가스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고졸

이라는 학력으로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중 2015년 충남 보령에서 국내 2번째 민간 LNG터미널사업을 SK그룹과 GS에너지가 공동투자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 당시 LNG관련 운영/정비를 경험한 엔지니어는 포스코가 유일했다. 포스코에서 함께 일하신 팀장님이 이직하시면서 나를 찾아주셨다. 나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내 고향 충청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하고 2015년 6월에 이직을 했다.

이직 후 충남 보령에서 근무하면서 한밭대학교 입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을 쉽게 실천으로 옮길 수 없었다. 퇴근 후 학교에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다. 퇴근 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할 생각을 하니 매일 지각할 것이 먼저 떠올랐다. 이직 후 2년 동안 회사, 팀에서도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직원이 되었다. 하지만 승진에서 2번이나 실패하면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유는 학력이었다. 포스코에서 와는 다르게 지금의 회사는 고졸이라는 학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과장, 차장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신입사원은 대졸출신으로 입사하였다. 회사 내 동갑내기 과장들과 대화중에 어느 대학, 몇 학번 등의 대화내용이 나오면 난 할 말이 없어진다. 고민 끝에 팀장님과 대학 입학에 대해 상의를 하고 팀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한 끝에 내가 꿈꾸던 대학, 내 전공 분야인 전기시스템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먼 통학거리를 팀에서 배려해줘서 학교 가는 날이면 4시 30분에 퇴근을 한다.

회사와 팀원들의 배려 덕분에 난 누구보다 더 성실히 다니고,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1학년 1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돌아보면 난 정말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학업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좋은 친구, 후배, 동기들을 만날 수 있기에 학교 가는 날이 즐거웠고 기다려졌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나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다.

그러나 학업과 직장을 병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남들보다 먼 등하교 길로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이기에 즐기면서 지내려고 한다. 대학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건 수학 이였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손 놓은 지 20년이 넘어서 기본도 모르겠고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어서 시험 준비는 일단 암기라도 해서 봤다. 전공과목은 나에게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었다. 하지만 첫 강의내용 및 수준에서 조금 실망을 했었다.

강의 내용 및 수준이 내가 생각했던 대학의 교육수준 보다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모든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조별 발표과제, 발표, 시험 준비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친구,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학교 입학하면서 대학생활의 낭만도 살짝 기

대했지만 미래산업융합대학 특성상 야간수업으로 강의 끝나고 다들 귀가하고, 다음날 출근으로 인해서 사소한 모임을 갖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학생활의 낭만은 그냥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우리 40대 친구 3명(나, 전상민, 황창석)은 틈틈이 우정을 쌓아가는 등 소모임을 가졌다. 목요일 수업 끝나고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각자의 인생과 삶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실 되고 진한 우정을 느꼈었다.

입학 후 1학기가 지났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처음 입학 후 첫날 서로 서먹서먹해 하던 학우들, 20대부터 제일 나이 많으신 형님까지 이제는 다들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좋다. 1학기를 마치는 지금 회사 직원들은 대학생! 대단하다! 정말 존경한다 등 나에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다. 옷차림도 역시 대학생 같다는 등의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 좋으면서도 조금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젊었을 때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하냐고 묻는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는가! 그렇지만 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을 향한 첫발이 지금 이 순간인 것이다. 전기기술사 취득 후 후배양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 꿈을 향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대학생활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정말 한밭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잘한 것 같다. 나의 이런 첫발이 회사의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후배들이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나의 스트레스 해소제 스포츠건강과학과

스포츠건강과학과 1년
최윤주

저는 선취업 후진학을 하기 위해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20살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의 직업과 맞는 행정학과나 회계학과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대학교를 알아보던 중 한밭대학교의 스포츠건강과학과 야간대학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스포츠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호기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봤습니다. 교육과정에 승마, 댄스스포츠, 골프, 수상스키 등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흥미가 있었고 에어로빅, 태권도를 다니면서 운동에 흥미를 느꼈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로 연기군 육상대회에 나가 3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욕이 강해 체육시간마다 올 A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때는 피구동아리에 활동을 하여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가 좋아 여러 가지 활동을 배웠고 직업도 운동선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운동선수는 많은 투자가 필요했고,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안 알아준다는 생각에 운동은 좋아하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편이 아닌 저는 운동선수의 꿈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여가시간에는 탁구, 태권도를 배워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건강과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운동을 더 배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원서를 내게 되었고, 현재 기대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고 처음 부대표를 맡게 되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있었으며, 학우님들과 경쟁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좋았던 제도는 절대평가였습니다. 다 같이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로 도우면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경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어지고 학우님들을 도와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대표를 맡아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학우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인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스포츠건강과학과는 저의 스트레스 해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주대학교에서 정기인사 이동이 있어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 적응과 공부를 해야 되었고, 민원업무 처리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밤에도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스포츠건강과학과 수업시간만큼은 일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아 수업에 집중하게 되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한밭대학교 수업시간만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포츠건강과학과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재밌었던 것은 체육대회였습니다. 대회 전날은 설레서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1~3학년 다 같이 춤추며 응원하였고, 서로 화합하여 체육대회 우승과 상품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 중 1~2개 빼고는 거의 다 출전하여 다음날 근육통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에서 일할 때 학생들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면 부러워서 옆에서 지켜보곤 했었는데 직접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서로 도우면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 재밌는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우리 학우님들을 믿고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학우님들과 서로 상부상조하여 같이 졸업하는 것이 목표이며, 스포츠건강과학과의 대학원이 생긴다면 스포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열망과 좋은 교수님, 학우님과의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대학원에도 진학을 할 계획입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회계세무부동산학과 2학년
장혜정

공기업에 근무하다 사정상 퇴직 후 정년까지 보장하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무렵 남편 권유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 과감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던 내게는 어려움이 많았고 직장생활과는 많이 달랐으며 사회,경제 등 돌아가는 현실도 잘 파악하지 못해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객과의 상담이 매번 반복되면서 당황스러움과 좌절감에 빠지기 시작했고 점점 자신감도 없어졌다. 이 분야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더 나아가서는 감정평가사까지 하는 일들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던 내 다짐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이러한 내 안의 갈증과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해소할 곳을 찾아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입학을 통해 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기대했다.

긴장감과 설레임으로 입학했던 대학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서먹서먹했던 학우들과의 만남이 랜드캠프를 통해 친해질 수 있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학우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음이 새삼 기쁨으로 남았다. 또한 '자산관리학과' 라는 이름만 가지고 지원했던 자랑스러운 과 이름이 나와 학우들과 전혀 상관없이 바뀌게 된 점 가슴 아픈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 한 학기가 끝나고 종강파티로 아쉬움을 달래며 계룡산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했던 순간들. 그 다음날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계곡에서 발 담그고 물장난 쳤던 학우들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

하지만 일과 함께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수업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

하기도 했고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기도 했으며 감기가 심해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온 적도 있었다. 이런 내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살며시 따뜻한 차 한잔 건네는 학우들도 있었다. 나와의 약속이었기에 성실하게 학교에 다녀야한다는 생각에 결석이란 있을 수 없는 학교생활이었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였다. 시험공부는 공부대로 할 수 없었고 일은 일대로 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런 힘든 생활을 참고 이겨내면 부족했던 부동산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큰 이익과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랑스러운 한밭대 졸업생이 될 것을 꿈꾸고 있다.

남은 학기 열심히 성실하게 다녀 내가 원하는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남들보다 우수하고 실력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로 남고 싶다. 입학할 때 결심했던 마음 그대로를 4년 동안 늘 가지고 힘들 때 참고 이겨내며 옆에서 함께하는 학우들과 많은 추억 쌓고 지냈으면 한다. 추억은 누가 만들어 주질 않는다.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워하며 후회하고 살고 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느끼며 많은 지식과 평생 간직하고픈 추억을 쌓길 바란다.

소중한 우리 동기, 우리학과

창업경영학과 3학년
김성환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졸 출신이라는 열등감이 알게 모르게 쌓여가고 있던 차에 나의 아내이자 사업파트너인 와이프의 강력한 권유에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창업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동안 누가 전공이 뭐냐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쭈뼛거리는 것도 싫었고 대학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기에 못이기는 척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왠일인가, 막상 들어와 보니 동기라는 낯선 사람들과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는 수업을 열변하며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지?' 라는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현재 내가 운영하고 회사도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낮엔 일하고 밤엔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고 힘들고 도통 적응이 안됐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휴학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도 했었다. 그래도 대학교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대학 보냈다.' 라고 내세우던 와이프 눈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쌍둥이들에게 본보기도 보여야 됐기에 그냥 참고 다닌 게 어느덧 3학년 1학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엔 말은 동기라고 하는데 다들 낯설고 데면데면했던 사이가 수업 때마다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끝나고 술도 마시고, MT다 체육대회다 뭐다해서 같이 지내다보니 어느 순간 내 삶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있었다. 다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동기라는 이름으로 친해져서 이제는 동기들 간 의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낮에 죽어라 일하고 밤에 강의실에서 만나면 '어, 왔어?' 하고 반겨주고, 밤늦게 수업 끝나면 같이 밥이나 먹고 가자며 학교 후문의 식당에 가서 갈매기살, 돼지껍데기 뒤집으면서 재무수업 너무 어렵다고 투덜거리면 받아주는 우리 동기들이 있기에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혈연, 지연, 학연을 나쁜 방식으로 이용하면 독이 되지만 나의 학연은 나에게 무척 소중한 인연이 되어 앞으로 남은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형님, 깜찍한 동생, 열심히 하는 누님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수님, 열정적인 교수님, 밤 늦게 수업 받는 우리보다, 새벽까지 더 열정을 다해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의 살신성인과도 같은 모습이 학교를 그만둘 수가 없게 만든다. 어떨 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 새벽1시가 넘어서야 도착한다. 비교적 젊은 나도 지치는데 열정을 다 쏟아내서 가르치는 교수님은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로 뭐 챙겨 드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을 정도다. 그만큼 학생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현재 운영 중인 사업에도 창업경영학과에서 배운 걸 적용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다. 아직 3학년이고 배울 건 많이 남았다. 남은 기간 동안 교수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적인 강의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서 배움으로 보답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교수님들과 우리 든든한 동기들이 있으니까 서로 믿고 의지하며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한밭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그 명문과 전통이 있는 대학? 거기 출신들이 아주 잘나간다며?' 라는 얘기를 듣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개인상담 후기

상담을 처음 만나던 그날

스마트제조응용공학과 2학년 한민우

상담을 처음 받을 때만 해도 Unit을 받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고 두 번째 회기쯤에는 그동안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차근차근 회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게 되었어요. 기분이 정말 홀가분한 상태가 되고 그 이후의 상담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담을 한동안 진행하게 되면서 학교와 직장의 갈등과 조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우연한 상담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의 손길로 다가왔고 과거로부터의 해소를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하고 항상 좋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학년 때는 신기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 어떻게 지내왔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지만 2학년이 되고 나니 학교 교정도 보이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는 주변의 다른 선배님들과 동기들 아우님들이 보이니 시간이 흐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 마저 들곤 했는데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주셨던 상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개인상담 후기

내 마음속의 요술램프

스포츠건강과학과 2학년 강경숙

작년 입학식 때 학생상담실에 관한 소개를 처음 들었고 그 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저의 마음 상태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1학년 2학기가 시작되자 입학 할 때의 설레임과 희망은 사라지고 4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저녁시간과 주말에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버겁게 느껴질 무렵 학생상담실 에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맨 처음 상담 할 때는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조금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상담선생님의 세심한 배려로 점차 익숙해져 갔고 상담을 가기 정말 싫었던 날에도 마치고 나면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사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분이 저의 팀장님이 되었을 때 의 절망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던지... 직장상사와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 저는 학교수업도 온라인강의도 이어갈 마음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부서를 옮겨야 하나, 휴직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직장상사와 왜 부딪히는지, 그동안 나를 무겁게 했던 마음의 짐들이 무엇이었는지 상담을 통해 이유를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주위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 마음은 20년이 넘는 직장생활까지 이어오며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인정 안하신다고 생각했고 저 또한 그런 팀장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 관계는 더욱 악화되던 중 우연히 출장길에 팀장님의 힘들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팀장님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자 정말 마법처럼 그동안의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최고의 직원이라는 칭찬 속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기 전 주위 사람들과 갈등관계가 생길 때면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되어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대며 고민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 졌습니다. 저의 이야기 속에 제가 몰랐던 저의 감정까지 찾아내서 깊이 공감 해주셨던 상담선생님의 표정과 눈빛은 평생 마음속에 기억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과 걱정이 생길 때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내마음속 요술램프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게 어떤거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상담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내용의 비밀보장 때문에 망설이시는 학우님들~~언제든 용기 내어 학생상담실 문 만 노크하신다면 저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마음속에 요술램프가 생기도록 학생상담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집단상담 후기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전기시스템공학과 1학년 김남철

심리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을 받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주로 소방관들이 구조 현장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나 상담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한밭대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도 심리상담을 한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겼다. 지난 봄 집단 상담을 조심스럽게 신청해놓고 약간 고민이 되었다. 바로 7살짜리 어린 우리 딸 때문이였다. 주중 2~3일은 학교에 다니느라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데 집단상담 까지 참여하면 꼬박 4일을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거기다 주말 이틀 중 하루는 당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이와 보낼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나에게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딸아이는 의의로 선뜻 나의 고민을 이해해 주며 대신 무조건 주말 하루는 자기와 놀아줘야 한다며 허락(?)을 해주었다.

집단상담 첫날, 상담에 대한 낯설음으로 첫 시간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만 파악하려고 했는데 어느덧 나는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상담에 빠져들게 되었다. 친구, 가족에게도 하지 못했던 마음속에 있던 말을 했을 때 다른 동기, 선배 집단원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었다. 이런 경험이 시간이 지나 반복 될 수록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겪는 일들은 모두 비슷하구나, 나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속 한 켠에 담아주었던 무거움을 조금씩 비워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단 상담을 마무리 하며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내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였고 또한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집단상담 후기

70살에 다시 쓰는 인생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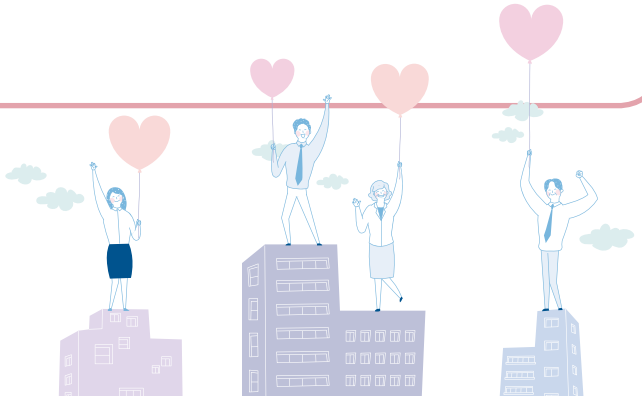
회계세무부동산학과 2학년 김해영

나는 살아오면서 늘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움츠러들면서도 항상 배움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대인관계나 가족 간에 좀 더 소통을 잘하고 싶고 나의 인격도 좀 더 성숙시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 나의 부족한 인성이 심리 상담으로 인해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나 스스로 느끼면서도 잘 고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가” 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을 느꼈다.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 한 후 또 한 번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마음을 습관화 하는 인생 훈련을 해야한다는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집단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를 나누는 즐거움에 비해 집단상담 기간은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제한된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 내 주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나는 또 기회가 된다면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싶다.

집단상담은 나에게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HANBAT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Converging Science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내 행사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경험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내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제 연구실 및 융합대학 도서관이 있었으면 합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이 곁다리가 아닌 다른 대학처럼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실무에 접근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취업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드림캠프가 좀 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융합대학 전용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빈 강의실 찾아서 얹혀서 수업 받는 느낌이 싫어요.
주간 대 같은 활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문자 내용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위안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상담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미래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http://mirae.hanbat.ac.kr

HANBAT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in Converging Science

국립 한밭대학교 HANBAT NATIONAL UNIVERSITY

한밭대학교 미래산업융합대학

[유성덕명캠퍼스]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25(덕명동) TEL. 042-828-8881~2 FAX. 042-828-8889

[대덕산학융합캠퍼스]

34158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관평동) TEL. 042-939-4800 FAX. 042-939-4803